

금화봉 일대 환경성 검토용역 반대 시위

주민들, 시위행위로 용역검토서 주민의견 반영 포천시장,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추진 안한다

지난 10일 금화봉 일대(참수·영중) 채석장 환경성 검토 용역의뢰와 관련해 영중면 주민 70여명은 포천의료원 앞부터 포천시청 앞까지 거리행진 시위를 벌였다.

이날 주민들은 석산개발로 인해 금화봉이 사라졌으며 '금화봉이 존재할 때는 생태조사 없이도 황폐화시켜 놓고 무엇을 조사하느냐', '채석업자 위한 환경성 검토 하지 말고 주민건강상태 조사하라', '금화봉 파괴해 지구상에서 없애 놓고 생생하게 환경성 검토 왜 말이냐' 등이 현수막을 앞세우고 장례처럼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주민들은 "석산개발로 인한 소음, 진동피해가 심각한데 또다시 환경성 검토라는 미명하에 석산개발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하고 "환경성 검토가 적당하다면 포천시장이 한 달만이라도 거사에 살면 주민들은 아무말 안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윤국 포천시장은 "금화봉 일대 환경성 검토 용역을 준 것은 석산개발 혹은 보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용역기관에서 석산개발과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떤 일도 추진하지 않겠다. 주민과 협의하고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환경성 검토 용역은 석산으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혹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때는 그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주민소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영중면 주민 70여명은 지난 10일 포천의료원 앞부터 포천시청 앞까지 금화봉 일대 환경성 검토 용역이 잘못되었다며 시위를 벌였다.

좋은 것인지에 관한 사항이다. 또



영중면 주민 70여명은 지난 10일 포천의료원 앞부터 포천시청 앞까지 금화봉 일대 환경성 검토 용역이 잘못되었다며 시위를 벌였다.

우리 동네를 말한다 ㉘

영북면 대화산리 이장 홍순식

녹색체험마을 추진으로 활기찬 농촌 건설

포천시 영북면 대화산리는 운천시내와 8km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가 하루에 5회만 운행되고 있을 정도로 오지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도로인 87번 국지도를 통해야만 하며 이것마저도 일부 구간이 비포장으로 접근에서 불편함이 따르기도 하다.

하지만 대화산리의 천혜의 장점이 뛰어난 자연환경은 이런 불편한 정도는 잊게 해 준다.

불투명한 중립으로 조화로운 수백 만평의 숲, 한탄강과 비둘기강의 수려한 경관, 원예작목반의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 고소득 등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관광지로서 개발 가능성을 충분히 높이고 있다.

대화산리의 인구 70%는 60세 이상으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을의 총 가구수는 57가구에 200여명이상이 거주하며 원예작물과 벼농사, 축산, 인삼, 과수 등의 순으로 주로 농업과 축산업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최근 대화산리는 정부의 녹색체험마을 육성 계획 발표에 따라 농촌관광의 리얼리티(?)를 최대한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화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체험 마을과 마을의 현황에 대해 홍순식 이장(42)에게 들었다.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은 작목반(토마토, 오이), 노인회(회장 임수영), 부녀회(회장 김진도), 새마을지도자(김석수 작목반장), 영농회(회장 조진양), 청년회(회장 정경배) 등이 마을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있다.

이 외에 대동회를 통한 마을사업 보고, 감사, 내년도 사업계획 협의 등이 이루어지며, 마을회관은 마을의 회의 및 경로당, 주민회합의 장소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홍 이장은 "마을 구성원들이 발전을 위해 하나같이 화합하고 있다"며 "비록 마을이 고령화되고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마을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이장은 마을 발전을 통한 자연스런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



홍순식 이장
영북면 대화산리

구상하고 있는 것이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농촌체험 마을인 녹색마을체험장.

홍 이장은 "대화산리의 75%가 임야로 이용가능한 경작지가 겨우 10% 정도로 활용성이 떨어진다"며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마을의 전통을 살려 황토마을과 토속마을을 육성해 전통과 풍습을 익힐 수 있는 산학습장 가꾼다. 이와 함께 청국장장과 된장, 심신한 아재, 토종꿀 등 토종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임야를 최대한 활용해 등산로 개발과 이와 연계한 군부대 헬기장과 훈련장을 활용한 전망대 활용,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욕장, 농산물 지역 특산물 판매, 군사시설을 활용한 사비벌 게임장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홍 이장은 녹색마을 체험을 위해 위와 같은 방안 외에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선 인터넷과 자매결연 마을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시작해 점차 홍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선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여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대화산리를 이어주고 있는 87번 국지도의 비포장구간이 설계변경 등의 여러 이유로 6km 정도의 구간이 비포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홍 이장은 녹색체험마을 체험을 위한 공동기반시설 확보와 관광객 유입을 위한 이벤트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철저한 준비 속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정기월례회의

본지 최호열 발행인, 윤종하 자문위원 감사패 받아

포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위원장 이민형)는 지난 18일 포천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정기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8일 부임한 김영배 서장에 대한 약력소개, 김영배 포천경찰서장 및 이민형 위원장의 인사말, 감사패 전달, 2005년도 상반기 포천경찰서 추진업무 성과 분석 보고 및 당면사항 등에 대한 토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배 서장은 인사말에서 "민·관이 협심해서 포천치안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치안유지에



포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는 지난 18일 포천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정기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있어 시민편의와 공공을 위해 용성을 발휘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민형 위원장은 "행정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자주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포천의 치안 및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행정발전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영배 포천경찰서장과 이민형 행정발전위원장으로 부터 본지 최호열 발행인과 윤종하 자문위원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이 있었다. 본지 최호열 발행인은 인권보호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천경찰서 경찰행정발전위원회의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경찰행정의 발전과 국민 최우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식·인격을 겸비한 지역 지도층 인사로 위원을 구성, 행정·선도·정문·인권보호분과 위원회로 운영된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민대중 제작 반대대책위 발족

오는 9월2일 토론회 형식 만민공동회 개최기로

포천시민대중 제작은 아무런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시민의 자율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10여명이 18일 포천사랑시민연대 사무실에서 시민대중 제작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시민대중 제작 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는 대진대 권인호 교수와 포천연극협회 이희용 회장을 대책위 임시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시민대중 제작 찬반 토론회를 오는 9월2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 시민대중 제작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포천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지역언론사, 경기도청, 중앙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홍보 활동과 송우,포천 5일장에 종(鐘) 제작의 부당성을 홍보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민구 포천사랑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처음에 시민대중 제작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천시장은 시민들에게 시민대중은 전액 2천만원으로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시민기금 6억, 시비 3억8천만원 등 총 예산 9억8천만원이라는(안)으로 수정,제한 것은 시민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공동대표는 포천시가 시민대중 제작 배경에 대해 포천시 승격 2주년을 기념하고 포천을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종(鐘) 제작의 명분도 실의도 없는 가운데 포천시장

은 관련단체를 동원해 강제성이 부여된 모금운동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 윤 공동대표는 포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원 1만인 이상, 담당(계정) 3만인 이상, 과장급 5만인 이상을 자발적 참여라는 미명하에 반강제적으로 모금해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천교육청은 시민대중 제작을 위한 학생 동조모임이 협조 공문을 각급 학교에 시달렸고, 몇몇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보내 시민대중 모금에 참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자율성을 크게 해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공동대표는 각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기부금 모금 자체 목표량을 설정 운영하도록 한 것은 물론 집중 모금운동 기간 설정 운영, 각 마을 단체별 단위별 모금액을 지정 운영토록한 것은 시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성이 부여된 포천관 평화의 탕건설이라고 주장했다.

윤민구 공동대표는 포천시장(종) 제작을 구성했고 공무원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안을 마련한 사항으로 추진 과정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치자 포천시장은 지난해 3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비 목적으로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시민대중 제작 명분과 실의이 없어 초기 추진위원들이 많이 이탈했을 뿐 아니라 시민대중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8·15 광복절에 수난 당한 태극기

포천시 8·15 광복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거리 곳곳에 게양했던 태극기가 광복절이 지난 후 방치돼 광복절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사진은 포천시교 교각 위에 8·15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게양했던 태극기가 포천천 변에 떨어진 채 방치되는 모습으로 포천시 신운동에서 스포츠 용품점을 운영하는 양력중씨의 제보로 촬영한 모습이다.

이부에도 포천시 일원에는 포천시조각실포지엄 등 각종행사를 알리기 위해 걸려진 홍보깃발들이 훼손된 채 방치돼 있어 조속한 정비마 요구된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아인스월드

세계 최고 건축물 테마파크 아인스월드

60일간의 프랑스여행

아인스월드에서 프랑스의 모든것을 만나보세요~ 이제 당신이 파리지앵입니다!

프랑스 문화에 빠져-쉽시다

감미로운 선물의 밤

- 고풍적이 열거하는 노랑기와의 낭만

감미로운 프랑스 음식의 향연

- 와인과 크레페의 멋진 만남

재미있는 연극공연

- 프랑스어이고 하는 연극은 어떻게? 연극수업도 꼭해보세요!

여러언어는 프랑스에서~

어려움을 위한 인형극

- 어린이의 상상여행
- 인형극 관람을 통해 규칙적인 식습관을 깨달아요!

환상의 물풍놀이

- 자네와프가 하나되어즐거는 아름다운 추억

피자 도우 Show!

- 피자 반죽을 이용한 화려한 쇼 (Mr.Pizza 드림팀 출연)

즐거움이 함께하는 아인스월드!

● 폼피르드 카페 이벤트

- 카페리제 / 페이스페인팅
- 샴아 놀이하는 프랑스 마시요

● 민방의 아인스월드

- 노랑기와의 멋진 만남
- 거울리서와 흥겨운 연주
- 밤하늘의 화려한 물풍놀이

● 로코로 이벤트

- 프랑스가 신의나라에 속 나폴레옹과 함께 추억을
- 체험할 때부터 상상을 뛰어넘는 재미
- 세계 유명 건축물의 레코르드 경쟁
- 재미와 함께 사냥!

사진찍고-파리 가자!

● 아인스월드의 즐거움 추억을 사진에 담아 직접 파리로 떠나는

신나는 사진 콘테스트

1등 프랑스 7박8일 여행권!! (미용권) 디지탈 카메라, 무료입장권 등 (이벤트 대상은 추첨을 통해 선정)

후원

www.ainsworld.com

세계 최고 건축물 테마파크 아인스월드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번지

대표전화 032-320-6000

www.ainsworld.com

인터넷 검색창에 아인스월드를 쳐보세요! 행운이 쏟아집니다!